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성령기도회

3

주 제:	“예수님의 사랑”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08년 3월 16일
복음 묵상:	마태 26,14-27,66	이사 50,4-7	필리 2,6-11

오늘부터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성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와 용서를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기가 되어 더욱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 자신을 질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 받게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희생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분의 희생에 감사하며 마음을 돌릴 때, 우리는 다가오는 부활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김성진 신부님 강론 중에서)

일요 기도회	매주 교중미사후 레지오실	2008년 3월 9일(일요일)
진행: 박혜숙 소피아	어복음 묵상: 요한복음 11:1 ~ 45	시편 묵상: 130편

나눔

- * 라자로는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벗으로서 예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을 라자로의 신앙은 제자들과는 또 다른 면에서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체험한 영적인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 순간에 그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서,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맛?되살아나게 하셨음을 새깁니다..
- * 라자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제쳤음에도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을 허락하셨지만 죽음 상태에 있는 '나'를 보시고 슬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고통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나를 비우고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중재기도

- 양바오로 신부님의 건강을 위해서
- 최시몬 신부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 아픔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 건강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을 위해서
- 암을 앓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지사항

- 5월 17일 산호세 성령기도회 일일피정이 Vallombrosa Center 에서 있습니다. 산호세 성당 성령기도회 일일 피정이 있습니다. 일자 : 2008년 5월 17일 토요일 장소 : Vallombrosa 회비 : \$20

“How is it that you three were not able to keep watch with me for even one hour?”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수요 기도회	매주 수요일 소성당 (7:00PM)	2008 년 3 월 12 일(수요일)
진행: 이 필로메나	음악:	참가 가족: 9 명

나눔 ; 지금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

- * 피정 신부님 말씀을 통해 새로운걸 많이 배움. 마음에 평화와 용기가 생김, 건강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 살아오면서 지금의 고통이 가장 큰데 이제는 혼자서 해야 한다는 것에 용기가 생김 주님과 성모님께서 도와주실거라 믿고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
- * 강의 내내 어릴때 내가 준 상처가 많은 아들 생각을 함,신부님께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알려 주셔서 이제는 정말 마주 앉아서 아들의 상처를 풀어 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음.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못느끼고 평생을 갈뻔 했음.
- * 하느님을 잘 몰랐는데 미국오면서 하느님을 알게됨, 순탄한 생활을 한탓에 늘 좋은것에만 비교 했는데...애를 바꿔달라고 기도 했는데 내가 변화됨.성경을 읽다보니 성령님도 느낌 하느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이리로 부르셨다고 생각,상황이 바뀐건 아닌데 마음에 평화가 음. 아이도 좀 바뀐것 같고 가정에 평화가 음.
- * 현재 나의 불만, 잘못된것이 과거의 일로 인해서 현재의 일이 일어난다는걸 알고 나니 현재의 것으로 야단치고 나무라면 안되겠다고 생각함
- * 신앙생활을 할려면 하느님께 나를 비취왔을때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먼저 생각,사람은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가장 힘든 고통을 겪고 가심, 바로 내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구불만을 어떻게 주위 사람들과 잘 조화 시키며 살아갈까 깊이 생각...반성하면서 사는 삶...
- * 예수님을 만남. 하느님께 드리는글에서 딸에게 잘못해준것, 그동안 나의 생활에서 잘못 된것, 많은것이 떠오름
- * 내 인생은 두 단계로 나뉘, 예수님을 만나기전과 후...영세를 받았지만 도덕 윤리는 가졌지만 사랑등...은 가지지 못했음.예수님과의 만남은 성령님과 더불어... 그래서 삶이 더 풍요 내 마음안에 있는것은 제대로 바뀌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심.다 내가 잘못해서 매일매일 일어난 일을 하느님께 보여 드릴수 있다 (나도 그랬다라고 하시는 예수님)

예언 말씀

- + 성령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 말고 모든걸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모든것이 이루어 지리라
- + 네 어머니는 너를 잊을수 있지만 나는 너희를 잊은적이 없다
- + 내가 너희를 선택 하였다 모래에 너희를 잉태 하기전부터 너를 선택했다
죄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워져라.
- + 네 마음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네 생각을 다하여 주님인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 + 너의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내가 흘린피로 너의 죄를 용서 하여 주었다
- + 무엇을 망설이느냐 나에게 모든것을 맡기고 너희 마음을 비우고 내가 하라는대로

참석 : 이 니콜라스, 이 필로메나, 김 맥시밀리언, 김 빅토리아, 이 캐롤린, 이 아네스, 석 레오, 전 막달레나,박 세실리아, < 9 명 >

+ 복음 [마태 26,14-27,66]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 그때에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하셨다. ○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나? ○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조롱하였다. ○ 또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겂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 오후 세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였다. ○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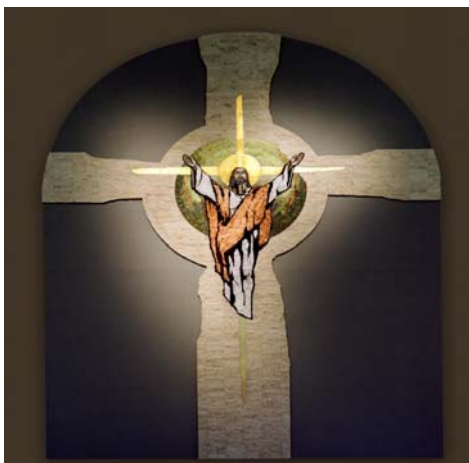
● **일년중 가장 중요한 성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전례에 전심으로 참석하여 은혜속에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1. 성지주일: 성지는 생명과 승리다. 평화의 상징이고, '호산나'란 구원하소서를 뜻하는 환호소리이다. 이날 축성한 성지를 각 가정에서 보관하는 것은 성지가 액운을 방지하고 하느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관습에서 왔다. 이는 신자들에게 믿음과 희망, 사랑을 가지라는 표시이다.
2. 성 월요일: 라자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진 향액을 부은 내용(요한 12, 1-11)의 복음을 낭독한다. 예수께서는 그녀가 무의식 중에 당신의 장례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신다
3. 성 화요일: 예수께서 배반당하실 것과 베드로가 모른다고 하리라는 것을 예고
4. 성 수요일: 예수께서 빠스카 축제를 지키신 이야기
5. 성 목요일: *주의 만찬 미사 *세족례 *헌양 제대—성체 조배
6. 성 금요일: 주의 수난을 기념하는 날로서 단식과 금욕으로 재를 지킴으로써 주의 죽으심의 신비 속에 더욱 참여한다. 이 날과 다음 날에는 오랜 관습에 따라 교회에서 성사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다. 십자가 경배
7. 성 토요일: 망부활, 혹은 부활성야라고도 한다. 밤 미사에 영성체한 교우도 부활 본 날 영성체 할 수 있다. 전례에 참례하는 모든 교우는 초를 준비한다. *빛의 예식;새불과 부활초 축성



1분 명상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려면”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려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짐으로써
 주님의 권능과 은총을 체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